

서울 특별시 진관내,외동과 구과발동에 걸쳐 있는 은평 뉴타운은 2002년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총 개발면적은 3,495,248 m² (약 1백5만7천평)이고 주택 15,200호, 거주인구 42,560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되기 전 은평 뉴타운의 대부분은 그린벨트, 자연 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으며 건축물 4,230동, 8,721세대, 인구 25,100명이었다.

은평 뉴타운 역시 다른 뉴타운 사업과 마찬가지로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과 공동체와 생활 터전의 파괴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원주민 고분양가 문제는 아직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시에 사용된 사진들은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촬영되었으며, 지금은 모두 사라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풍경들이다. 이는 은평 뉴타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폭력적 개발의 일반적 모습이기도 하다.